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진귀하지 않다면 기술적일 수도 없다."

- 바쉐론 콘스탄틴 매뉴팩처의 핵심을 이루는 예술 공예 기법은 디자인 스튜디오와 인그레이빙 장인, 젬세팅 장인, 기요셰 장인, 에나멜 장인이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Metiers d'Art 공방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롭고 열정적인 교류 과정에서 탁월한 작품이 탄생합니다.
- 바쉐론 콘스탄틴은 거의 300년간 전통 예술 공예 기법을 충실히 구현하며 이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공예 기법의 독창성과 세상을 향한 열린 시각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 이래로 메종 특유의 스타일뿐 아니라 워치메이킹 기술과 예술 공예 기법의 장식 전문 기술을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하여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하이 워치메이킹 분야에서도 이처럼 두 가지 노하우 모두를 계승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 메종은 스타일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술성 및 장인 기술이 돋보이는 독특한 표현으로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공방에서 장인은 곧 <u>아티스트이며, 마찬가지로 아티스트가 곧 장인입니다. 이들은 바쉐론 콘스탄틴의</u> 인문주의적이고 문화적인 소명을 구현합니다.











267년 전이지만 마치 어제처럼 생생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계몽주의 시대, 워치메이킹이 부상하던 제네바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아름다운 시계가 마치 예술적 작품이며 기계 공학적 작품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메종의 CEO 루이 펠라Louis Ferla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설립 이래로 줄곧, 표현하기는 쉽지만 구현하기는 어려운 철학적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진귀하지 않다면 기술적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만의 독특함을 우선적으로 특징짓는 요소는 전체적인 조화, 자연스러운 품격 그리고 하이 워치메이킹에 대한 색다른 접근법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바쉐론 콘스탄틴의 장인은 겸손함과 지식을 계속해서 전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원동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인그레이빙 장인, 에나멜링 장인, 기요셰 장인, 젬세팅 장인, 또는 워치메이커로서 진귀한 재능을 지닌 이들은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듯 서로에게 장인 기법을 전달하며 완전한 자유 속에서 항상 가능한 더욱 잘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각 장인들의 작업물과 창의성에 의해 최종 결과가 결정되며, 이들의 완벽한 기술력과 끊임없는 소통을 기반으로 탁월함을 향한 도전 정신을 구현하는 시계가 탄생합니다. 메종에게 있어 장인들은 심장이자 영혼 그 자체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 이후로 장인 기술의 노하우를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전수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의 전통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장식 디테일은 장인이 직접 설계한 다양한 도구나 이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정교한 오래된 기계를 사용하여 모두 수작업으로 완성됩니다. 인문주의와 세상을 향한 열린 시각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인그레이빙, 기요셰, 에나멜링, 젬세팅 분야에서 진귀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법을 추구함과 동시에 오랜 역사를 지닌 장식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메종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541년 제네바에 정착한 장 칼뱅 Jean Calvin이 사치품으로 인식되었던 주얼리와 장식 오브제를 금지시키면서 금세공 장인이 워치메이킹 업계로 전향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제네바 워치메이킹 분야의 이례적인 성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또한 이와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8세기 초반, 제네바 시민의 5분의 1가량인 5천여 명의 워치메이커, 금세공 장인, 주얼러, 장인들은 디드로Diderot와 달랑베르d'Alembert가 그들의 백과사전 Encyclopaedia에서 라 파브리크La Fabrique라고 칭했던 조직에 속하며 풍족한 환경을 형성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메종 특유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다른 분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통합하고, 변화시키고, 해석함에 있어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여러 해에 걸쳐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러한 "수작업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장인의 독창성을 향한 헌신은 혁신을 탐구하는 지향성과 발맞추어 나아가며, 다양한 예술 기법과 진귀한 워치메이킹 전문 기술로 완성된 Metiers d'Art 컬렉션과 세상에 단 하나뿐인 Les Cabinotiers 타임피스는 이를 증명하는 탁월한 예시로 손꼽힙니다. 장인들은 바쉐론 콘스탄틴 매뉴팩처 내에서 저마다 기술을 갈고 닦으며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합니다. 새롭게 발명한 조형적 형식의 기요셰 기법, 젬세팅 분야에 등장한 플레임 컷, 그리고 그리자이유 에나멜링에 대한 연구는 바쉐론 콘스탄틴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작품입니다. 이와 같은 예술적 및 기술적 혁신은 위치메이커들에게 새로운 창조적 영역과 많은 요소를 탐구할 수 있는 넓은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장식 작품을 선보이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예술 공예 기법을 통해 세상을 향한 열린 시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 Christian Selmoni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메종 특유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다른 분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통합하고, 변화시키고, 해석함에 있어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합니다."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뉴팩처는 회사 내에서뿐 아니라 뛰어난 재능을 지닌 독립 장인들과 함께 노하우를 발전시키고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메종의 마스터 에나멜 장인과 그랑 푀 에나멜 다이얼에 진귀한 파우더를 사용하는 일본 캘리그래피 장인의 협업으로 탄생한 Metiers d'Art 빌레 루미에르Villes Lumieres 시계입니다. 또 다른 예시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위대한 문명에 헌정하는 Metiers d'Art 시리즈로, 이는 스톤 마이크로 모자이크 및 스톤 마르퀘트리 세공 전문 장인과의 밀접한 협업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공방에서 장인과 아티스트의 경계는 유연합니다. 필요한 경우 그 경계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어떤 규칙에도 매이지 않은 채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장인은 방대한 기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성 및 직관 측면에서 자유로운 창작을 전개해 나갑니다. 하이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대담한 시도는 탁월한 기술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Les Cabinotiers 또는 Metiers d'Art 컬렉션의 탁월한 타임피스 중 일부는 장인의 아이디어에서 태어납니다. 문화 및 여행 모두와 관련된 인문주의적 소명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정체성 속에 깃든 탁월한 지식을 상징하는 요소이자 뛰어난 수작업 기술을 구현한 작품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공방에서 장인과 아티스트의 경계는 유연합니다. 필요한 경우 그 경계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어떤 규칙에도 매이지 않은 채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릭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